

북한개발소식

2025 APR

04

통권 234호

이달의 주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와 북한 선교

탈북민 수기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7)

북한뉴스

북, 트럼프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
한미연합훈련 반발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와 북한 선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5 APR

이달의 주제 :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와 북한 선교

- 권두칼럼 **01**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와 북한 선교
- 칼럼_1 **10** 강동완_ 충성의 외화별이: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 칼럼_2 **15** 이상용_ 北해외 노동자 대거 파견, 그들의 인권은 어디로?
- 칼럼_3 **20** 이승주_ 김정은 시대의 노동자 해외 파견 정책과 인권 실태
- 탈북민 수기 **27** 김열매 성도_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7)
- 서평 **32** 수정주의 북한
- 북한뉴스 **34** 북, 트럼프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 한미연합훈련 반발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외



최근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이 큰 화제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의 해외노동자파견 제한에 따른 외화벌이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해외 북한 노동자 파견은 대북제재로 인해 금지되었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결의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호는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였다. 뒤 이어 2017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로 송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해외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관련 실태 연구에 따르면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 북한의 노동자 파견 규모는 약 113,700~147,600명 선으로 추정되었다.¹ 이 숫자도 상당한 규모이지만 정은이(2024)², 박종철(2024)³은 현지 연구를 통해 2016년 기준 중국에만 15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체류했으며 2024년 기준으로 12만 명가량의 노동자가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거기에 러시아와 기타 지역을 포함하면 북한의 노동자 파견은 여전히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그들을 통한 북한의 외

1 이상신, 오경섭, 임예순,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KINU 정책연구시리즈 16-04, 통일연구원, p. 20.
 2 정은이(2024), “송금(Remittance)이 북한 가계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국 체류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36권 2호 (제82호), pp. 75-80.
 3 박종철(2024), “중국의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84호, pp.146-149.

화별이,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따른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 왔다. 24년 초에 있었던 임금 체불에 반발한 북한 노동자들의 파업사태로 볼 수 있듯이 북한 노동자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전망 및 선교에 대한 제언을 나누고자 한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해외 북한 노동자 파견

해외 북한 노동자 고용에 대한 제재가 부여되었지만,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는 가장 먼저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를 위한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중국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송금한 송금액의 규모가 북한의 대중 수출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일 것으로 분석되었다.⁴ 2019년 자강도 도무역관리국 외화벌이 연간 계획분에 따르면 도의 외화벌이 수입의 20%를 노동자 해외파견수입액이 차지하고 있었다.⁵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가 북한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당국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해외 노동자 파견은 새로운 기회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외 노동자 파견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분 토대가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단계마다 수습에서 수백 달러의 뇌물이 요구된다. 게다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을 주민들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뇌물을 고여가며 선발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벌이가 마땅치 않은 북한의 현실 때문이다. 특히 여의찮게 상당한 빚을 지게 될 경우, 일반적인 임금 노동으로는 이를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외 파견을 선택하기도 한다.⁶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번 해외 노동자로 파견을 다녀오면 거기서 멈추기 보다는 2~3회 이상 해외 파견을 이어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재차 출국하는 경우, 당위원장의 추천만 있으면, 최초 출국할 때 이미 취득한 관련 문건이 있으므로 몇 단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미 해외파견 경험이 있는 노

동자의 경우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인식이 있고, 재차 해외파견을 지원하는 노동자 역시 신속하게 해외출국을 희망하기 때문에 첫번째 파견에 비해 더 많은 뇌물을 당비서에게 바친다고 한다.⁷

수용국 역시 북한 노동자 공급이 절실하다. 북한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는 중국의 동북 지역이나 러시아 극동 지역은 청년 인구 감소로 충분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해외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가치는 더욱 상승했다.

이에리아, 박수성(2022)⁸의 러시아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 현황 연구는 북한 노동력이 절실한 연해주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결의 이후 북한 노동력에 대한 제재에 따라 각 지역의 북한 노동자 쿼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체류자의 체류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기한이 만료된 노동자의 비자 연장을 불허해 북한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송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연해주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건설 노동력의 약 80%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1만여 명이 떠난 북한 노동력을 베트남과 인도 및 옛 CIS권 국가 출신자들로 보충하려고 애썼지만 2020년 닥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이마저도 마땅치 않았다. 게다가 북한 노동력은 ‘중국인들도 (일하기를) 거절하는 노동현장에서 가장 저렴한 노동력으로 주로 (공익사업을 포함한) 예산 지원을 받는 시설물 건설, 주거용 건물 수리 및 건설, 어업 분야에서 수요가 많았기에’ 대체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지의 평가이다. 결국 연해주의 노동시장은 인력 부족과 임금의 대폭적 상승이 일어났고, 귀국하지 못한 북한 노동자들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으며, 일감을 찾아다녔던 북한 회사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은이, 박종철(2024)⁹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 부모들은 자식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려 하지 않으며, 젊은 세대 또한 3D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접경 도시는 젊은 인력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면서 젊은 인력 수급에 큰 차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들 (사진=VOA)〉

4 정은이(2024), 앞의 글, pp. 86-88.

5 정성준(2023), “북한노동자 해외파견 이면에 있는 북한-러시아 비공식 경제협력체계”, 평화통일논총 제2권 제1호(2023), pp.195-197.

6 정은이, 박종철(2024), “김정은 시기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발생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 국내 선발의 메커니즘과 수용국 회사의 편익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제29집 제4호 (2024), pp. 97-98.

7 위의 글, pp. 97-100.

8 이에리아, 박수성 (2022),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북한 노동자 현황 연구 - 2017년 유엔 대북제재 이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5권 2호 (2022), pp. 182-226.

9 정은이, 박종철(2024), 앞의 글, pp.93-120.



〈중국 수산물 공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 (사진=Outlaw Ocean Project)〉

을 받고 있다. 반면 북한 노동력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계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1일 노동 시간이 상당히 길고 계절적 제약 요인도 덜 받아 납기나 공사의 마감 기간을 앞당겨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이직률도 낮아 사업가에게 안정적인 생산과 이익을 보장하여, 기업의 미래에 대한 설계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큰 우위가 있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마스크와 방호복 생산 등으로 동북지역 봉제업체들이 때아닌 특수를 맞았는데, 몰려드는 일감을 감당하는 데에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북한 노동자들의

역할이 컸다. 그렇기에 제재 이후에도 중국 기업들은 북한 노동력 수용을 위해 복잡한 수속 절차와 제재 우회 경로 개발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가 아닌, 좀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재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가치는 높아졌지만 개선되지 않은 북한 노동자의 처우

북한 노동자가 절실한 현지의 상황과 대북 제재로 북한 노동자 확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북한 노동자의 가치는 상승했지만, 그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러시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재 이행에 따른 노동자의 귀국과 코로나로 인한 대체 노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지만, 노동환경은 북한 노동자 철수 이전의 집체 노동 상황과 별다른 차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 대유행은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통제하는 명분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작업 현장을 옮길 때조차 관리자가 동행을 했고,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건설 현장은 물론 여가 생활에서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이유가 됐다. 또한 노동자 개인의 ‘청부’ 활동이 제한되었다. 청부는 러시아 회사와 북한측 사업소가 정식 계약을 맺어서 작업에 투입되는 집체노동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 일하는 일종의 가외 노동을 뜻한다. 국경 봉쇄로 가족에게 송금할 기회가 사라졌고, 청부가 불가능해 추가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은 연해주에 잔류한 노동자들에게 부담

으로 작용했다.¹⁰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코로나 19 감염증 방역에 필요한 물품 생산에 동원된 북한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들은 하루 기본 12시간 노동에 야근까지 하면 새벽 2, 3시까지 일해서 코피를 터트리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의 상당수가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근무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봉제업체에 일하는 북한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허리와 목, 무릎 등에 고질병을 달고 살아가며 적절한 치료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하루 3교대로 8시간씩 일하는 데 반해 북한 여성노동자들은 교대 없이 한 사람이 장시간 일하고 있어 몸에 엄청난 무리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된 근로 여건 외에도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본적인 생필품이나 위생용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주지의 위생 여건도 열악하여 생활에 큰 불편과 건강 악화를 겪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한다. 공장의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손재주가 좋은 젊은 북한노동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를 인상해주었다는 소식도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60~70%를 ‘충성자금’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납부하고 있다 보니 실제적인 북한 노동자들의 인건비 상승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¹¹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었음에도 이들 중 상당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대 젊은 여성이 대다수로 점하는 이들 노동자가 중국에 체류한 지도 2024년 기준으로 4~6년을 경과하게 되었다. 오랜 해외노동에 지친 이들은 시급하게 북한 내에서 가족상봉을 희망하고, 또한 북한 기준으로 결혼 적령기가 넘음에 따라서 결혼을 위하여 귀국을 희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경 부분 개방 이후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의 귀국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¹²

안타까운 것은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 노동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안보리 제재 이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대부분 파견국

10 이에리아, 박수성(2022), 앞의 글, pp. 210-214.

11 최영진(2021), “코로나시기 동북아접경지대에 북한노동자의 고용위험-체류와 송환”, 평화학연구 제22권 4호 (2021), pp.43-46.

12 박종철(2024), 앞의 글, pp. 150-151.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에서 공식적으로 3년짜리 노동비자를 받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 이후 파견국에서 노동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단기 비자인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를 발급해 편법적으로 노동을 지속하였다. 단기 체류 비자로 일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비자 갱신을 위

해 잦은 이동을 하거나 거주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공식적인 노동자 신분인 아님도 파견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다.¹³ 거기에 더해 외부의 시선을 피하고자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하게 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역설적 현상도 일어났다.¹⁴ 이러한 가운데 장기간 본국으로의 송환이 이루어지고 밀린 임금마저 제때 받지 못한 북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24년 초 파업 사태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표면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 침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한 인권 활동은 제한적이다. 북한 노동자를 둘러싼 안보(제재)와 인권의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 이전에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을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인권 문제로 제기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회원국과 북한 당국에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안보의 문제로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면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은 이제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행위가 되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더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 침해를 개선한다는 발상 자체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 레짐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¹⁵ 악영향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은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금지한 유엔의 대북제재는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그 효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북한이 러우 전쟁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기까지 이르렀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참전 방식에 따라 연간 3억 2천만 달러에서 13억 4천만 (4,451억 원~1조 8,638억 원)의 직접적 외화 소득을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¹⁶ 이러한 북한의 파병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 관계뿐 아니라 북한이 외화 획득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러우 전쟁의 종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파병과 무기 수출로 이익을 얻어온 북한에게 새로운 외화벌이 활로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역시나 해외로의 노동자 송출 확대이다. 특히 전쟁 이후 재건 사업을 위한 노동력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재건을 위해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¹⁷ 이미 지난해부터 돈바스 지역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다는 보도도 전해진다.¹⁸

기존 해외 노동자 파견 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의 경우 상당수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예상보다 훨씬 긴 기간을 체류하고 있으며 본국으로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들의 귀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 당국의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북한의 귀국 노동자를 대체할 재파견 요구와 유엔 제재를 준수하려는 중국 당국의 입장 차이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⁹ 하지만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우 전쟁 종전 등의 움직임 속에서 북중관계도 다시금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북

13 이지연(2024), “유엔에서의 인권과 안보의 동학: 북한 해외 파견 노동 사례 분석”, 문화와 정치 제11권 제4호(2024), pp. 270-274.

14 정은이, 박종철(2024), 앞의 글, p.118.

15 이지연(2024), 앞의 글, p. 273.

16 임수호(2024), “용병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627호(2024.11.18.).

17 러시아 대사 “북한 노동자, 돈바스 재건 위해 파견할 수 있어”, 한겨레 (2022.07.2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51650.html>>

18 北 노동자들 돈바스에 파견돼…주택·학교 건물 재건 작업 중, 데일리NK (2024.04.11.), <<https://www.dailynk.com/20240411-1/>>

19 박종철(2024), 앞의 글, pp. 150-152.

한의 노동자 재파견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거나, 관광비자나 도강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통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선교적인 고민과 기도

북한 입장에서 해외 노동자 송출은 양날의 검이다. 한 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통로로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당국이 최근 그토록 신경을 곤두세웠던 외부 정보와 문화의 유입을 경계하는 눈치이다.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십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노동자들이 일시에 귀국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파장에 대해 북한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 당국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도 엄격한 사상 문화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위 일컬어지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비롯하여 주민 상호 감시와 신고 의무를 제도로화한 군중신고법 등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²⁰

이러한 북한의 우려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에 대한 선교의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록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어그러지기는 했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은 보통 일회성을 끝나지 않고 2~3회에 걸쳐 이어진다. 또한 한번 파견 시 기본적으로 3년을 체류한다. 기간으로만 따지면 최소 3년에서 거진 10여년에 가까운 시간을 북한 밖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사상 문화적 영향력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충분한 시간이다.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들이 단순히 외부 문화만 경험하고 돌아가는데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 노동자에 대한 접촉이 매우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내지로의 접근과 비교할 때 해외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은 선교에 훨씬 좋은 여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활 여건도 매우 열악하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복음 전도는 한계가 있더라도 고된 타지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등의 관계

맺기와 인도적 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복음 전파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제재 레짐 하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운신의 폭이 더 제한받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작은 손길이 이들에게는 큰 도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노동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쌓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받은 친절과 도움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복음의 텃밭이 기경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이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고, 선교의 얼굴을 하지는 않았지만 선교적인 활동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관계를 맺을 창의적인 방법들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접촉점을 개발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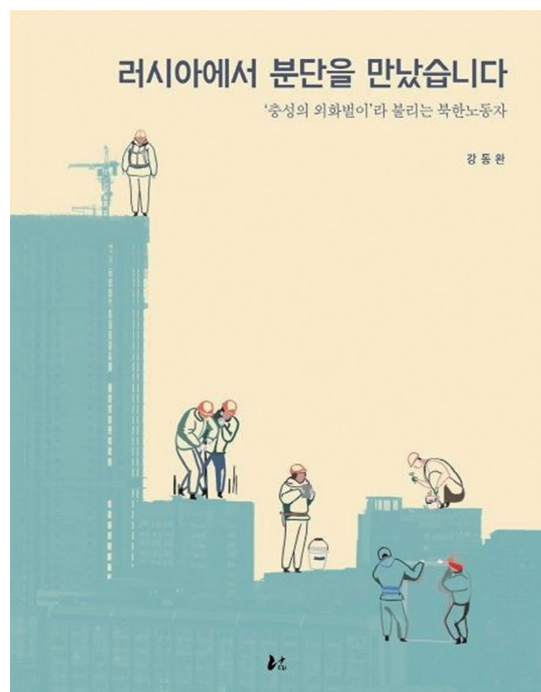
더 나아가 각 지역 및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북한 노동자 선교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집체 노동이 주가 되는 지역도 있지만 청부 활동이 활발한 지역도 있고 또 임시 비자나 통행증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노동활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도 있다. 이러한 북한 노동자의 다양한 활동 양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선교의 접촉점을 만드는 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향후 러우 전쟁 종전에 따른 돈바스 지역 재건 등을 생각할 때 북한 선교를 위한 해외 교회와의 연계 및 타 지역 한인 선교사들이 북한 선교에 참여하도록 동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북한 선교의 과제가 될 것이다.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는 북한의 외화벌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문제,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인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북한의 영혼이라는 측면에서는 선교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 송출은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 그리고 수용하는 지역과 기업들 모두가 원하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북한 노동자들이 어려운 노동환경 속에서 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더 나아가 생명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는 일에 한국 교회가 더 큰 관심과 사역, 기도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 

20 황현욱(2024), “북한 「군중신고법」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해외 파견 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Vol. 32 (2024 Dec), pp.205-244.

충성의 외화벌이: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강 동 완 (동아대 교수/유튜브 강동완TV 운영)



〈저자가 연해주에서 만난 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저서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2019)〉

지난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관계조약을 체결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서는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는 물론 북한의 전투병 파병이 절박했을 것이다. 이후 실제로 북한 군인의 파병이 이루어졌고, 시시각각 전장에서는 그들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꽃다운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간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얻는 대가는 무엇일까? 핵개발을 위한 군사기술원조, 원유와 식량지원 등 김정은 정권을 배불리는 숭한 금전적 대가는 바로 북한 군인들의 목숨값이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전 세계 모든 해외 파견 북한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던 북한노동자들은 그 당시를 기점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예외였다. 러시아의 경우 오히려 북러조약을 계기로 대북제재와는 아랑곳없이 최

근에 더 많은 북한 노동자를 용인하고 있다.

‘당과 조국을 위한 충성자금’, ‘충성의 외화벌이 일군’은 바로 그들을 부르는 말이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낯선 타국까지 오도록 만들었을까? 사랑하는 가족을 볼모로 조국에 남겨둔 채, 이역만리 땅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마주할까? 그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한 고통의 흔적들을 따라가 보면 해외파견 북한노동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다.

계획분이라는 명목의 착취

러시아에 파견된 회사는 북한당국에 계획분을 바쳐야 한다. 중간, 고급간부는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모아 당국에 바친다. 따라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더 많은 돈을 벌고, 계획분을 채울 수 있다.

그렇기에 관리자는 언어와 기술이 숙련된 노동자를 개별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 단체생활을 하는 숙소가 아닌 개인이 직접 나가서 노동을 하고 계획분을 벌어오는 방식이다. 그들 사이에서 이러한 노동자를 ‘청부 뛰는 사람들’, 일명 ‘레몬트’로 불린다.

그들의 당과 조국을 위한 충성자금, 즉 계획분은 한 달에 1,000달러 정도다. 이 금액은 러시아 현지 물가를 고려할 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당이 대략 2만 루블(한화 4만원 정도)정도기 때문에, 1,000달러는 일당으로 치면 30일을 꼬박 근무해야 겨우 벌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런데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30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러시아 지역의 날씨를 고려할 때 365일 중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영하 40도에 이르는 극한의 추위에서 건설일로 하루 30달러 정도의 돈을 벌며 매달 1,000달러의 돈을 상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자금의 실체다.

청부일을 하는 개인 노동자 한 명이 회사에 바치는 계획분이 1,000달러지만 이 돈이 모두 국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간부들이 받아서 일부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의 몫으로 탈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달러라고 하면 그중에 70%만 뒷선에 바치고 나머지 30%는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구조다. 직장(장), 사장 등 간부들이 중간에서 착취하기 때문에 개인 노동자들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힘들다고 말하면 “조국에 돌아가라”는 말만 되돌아온다고 한다. 몇 년 동안 일해서 손에 돈 한 푼 없이 돌아갈 수는 없기에 이를 악물고 참고 또 견뎌낸다. 청부일을 하는 어느 노동자의 경우 5년 동안 일해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고작 400달러라고 했다. 그나마 개인이 가진 돈까지는 빼앗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당국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5년 동안 일해서 번 400달러마저 빼앗는다면 정말 악마와 다를 바가 될까 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다.

정해진 근로시간은 없다

청부일을 하는 노동자는 순전히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이 결정된다. 회사에 바치는 계획분을 무조건 벌어야 하는데, 이 금액을 한 달 안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노동시간 동안 일을 해서는 결코 충당할 수 없다. 그만큼 장시간의 노동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청부 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작업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다. 일당제가 아닌 공사의 완료 여부에 따른 계약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일 안에 일을 끝내려 한다. 그래야 다른 일을 맡아서 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일 만에 끝내야 할 일을 4일 만에 끝내면 남은 하루는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 현장에서 북한노동자들이 현지인들에게 인기 좋은 이유는 작업속도 때문이다. 일당제가 아닌 일의 완성에 따라 여차피 똑같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서로에게 이익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노동자들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할 수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이라 해도 이웃에 공사소음 등의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새벽까지도 불을 밝히고 일을 한다.

야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작업장

단체로 합숙을 하는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야간에 조명을 밝히고 일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대형건설장에서 야간 조명을 밝히고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지속하되 소음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러시아 연해주 건설장 어디나 야간에 여전히 불이 쉽게 꺼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작업공정을 서둘러 끝내기 위해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다. 이는 해외 북한노동자의 근무시간과 노동환경 평가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설 현장 내부에 널려있는 북한 노동자의 침구류. 북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공사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사진=KBS 보도 캡처)〉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 학습, 생활총화

일주일 동안 나가서 혼자 청부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토요일에 회사 합숙소로 복귀해야 한다.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 학습, 생활총화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계획분을 바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매주 토요일에 한 번씩 관리자와 만나서 상납하거나 숙소로 들어와서 바치는 형태다. 힘든 노동의 현장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생활총화 노트를 작성하며 투철한 사상을 무장한 후에야 겨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

잠들기 전 5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고된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고단한 몸을 누였기에 바로 잠들거라 생각했다. 먹는 것도 변변히 챙겨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할까. 하지만 쉬이 잠을 청할 수가 없다고 한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잠들기 전 5분이라고 한다. 그 시간이 되면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등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는다고 한다. 결국 잠을 청할 수 있는 건 독한 술 한잔에 기대는 거다.

4절까지 외워서 부른 찬양

이토록 힘든 노동현장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는 건 한국사람과의 접촉을 통



해 받은 위로다. 현지에서 접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외부세계를 경험하는 또 하나의 창이 되었다.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현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듣게 된다.

러시아 현지에서 직접 만난 북한노동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형제가 한 명 있다. 찬송가 305장을 4절까지 외워서 끝까지 부른 그였다. 현지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 공부’(성경공부를 의미)를 했다는 그를 보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선한사명자로 부르고 계심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표현대로 그는 정말 ‘김일성-김정일 주의 기둥대신 하나님기둥’을 세웠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그와 마주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본다.

러시아 파견 북한노동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 독재자의 통치자금을 위해 수많은 이들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혹독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그 어느 때 지나간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니 기억이 아니라 관심이 되어야 마땅하다. 세상 어디에 ‘당과 조국을 위한 충성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뽀속을 에이는 혹한의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연해주 건설장 어디나 그들의 흔적이 뿌려진다. 사람의 손이 그토록 거칠어질 수 있음은 애써 그들의 손을 잡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성한 손톱 하나 없이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고된 노동의 삶을 그저 견뎌내야만 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이 소중한 가치를 경계 너머 그들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갈라진 조국의 아픔 앞에 바스락거리는 마음들을 보듬어 이제는 하나가 될 그 순간을 꿈꾼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을 간곡히 전하고 싶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해도 그들의 생명이 다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하루도 제발 그들이 살아내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칼럼 2

北해외 노동자 대거 파견, 그들의 인권은 어디로?

이상용 (데일리엔케이 AND센터 디렉터)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최근 가혹한 지시가 하달됐다. 이는 바로 ‘국가계획분 2배 상향’ 조치다. 여기서 ‘국가계획분’은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게 부과하는 외화벌이 목표치를 뜻한다. 지금도 버거운데 갑자기 2배로 내라고 하니, 노동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보면 노동자를 2배로 늘리거나 혹은 작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 당국 입장에서는 해외 노동자 송출은 ‘충성자금’ 확보에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 포인트다. 이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를 대거 파견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9일,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 각지에 노동자 수천여 명을 파견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었다.

데일리NK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그물에 갇힌 인권’이라는 주제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수단이 된 주민들이 해외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억압된 채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례들을 수집·취재해 국제사회에 전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상황이 변화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보도한 핵심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북한 해외파견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임금 계약도 절차도 ‘깜깜이’

일단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과 계약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계약상으로는 월(月) 2,000~3,000위안(한화 40만~60만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본인들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500위안(한화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포착됐다. 나머지 금액은 국가계획분이나 충성 자금의 명목으로 강제 공제되는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금지하는 강제·예속적 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또한 ‘외화 과제’가 노동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계약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만 하고 있다. 변경·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임금 지급 절차도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의 탈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월급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고, ‘장부에 다 적혀 있다’ ‘귀국할 때 한꺼번에 정산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착취당하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야간전투’도 내몰고 아픈 병자(病子)도 사정 안 봐준다

근로 시간과 휴식 보장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주말·야간까지 근무해도 추가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하며,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진술한다.

해외에서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야근’을 ‘야간전투’라고 표현하곤 한다. 주민이 몰릴 때면 밤샘작업도 불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점을 비꼰 용어로, 이에 대한 불만도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투’이기 때문에 개인 사정은 무참히 짓밟힌

다. 진짜 ‘전시(戰時)’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병에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밤샘 근무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즉각 ‘비판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는 곧 다른 동료들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해, 누가 쉽게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북한식 호상(상호) 비판이 여기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공식적 압력’에 의한 초과근로는 ILO의 ‘근로시간에 관한 협약’이나 국제인권 규범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북한·중국 국내법 상의 근로기준(형식상)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대가가 없는 초과근로 강요는 명백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

아니 화장실 문제까지 통제한다고?...해외 근무지도 ‘감옥’ 만드는 북한

숙소나 작업장 내부의 상시 CCTV 감시와 감시인원 배치를 통한 초밀착 통제, 화장실 출입까지 통제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하나의 감옥을 만들어 놓은 북한을 그대로 옮겨온 모습이다. 이는 북한이 이른바 외부 콘텐츠 접촉을 금지하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12월),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9월),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1월))을 채택된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양태다. 서로가 서로를 외부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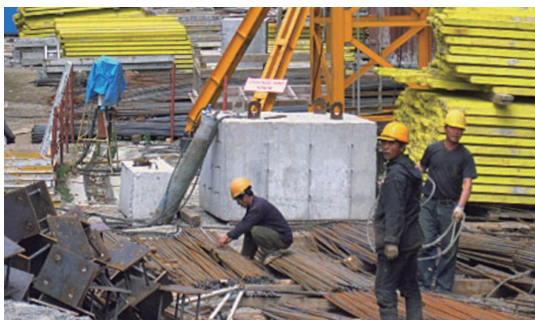
심지어 북한 당국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교양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외래문화를 무찌르자’라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사상 무장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된 세뇌 작업을 통해 다양한 사고 방식을 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모든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결부된 국제규범을 위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적 발언이나 성관계 강요 사례에서 피해자가 대처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중순 중국 지린(吉林)성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는 신고했다가 오히려 관리자께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신고자 보호 체

〈중국 공장에 설치된 CCTV의 장면. 북한 보위부원들은 노동자들의 우편물을 포함해 일상을 감시하고 공식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보고한다. (사진=Outlaw Ocean Project)〉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들 (사진=VOA)〉



계도 미흡한 이 같은 환경은 국제 인권규범과 충돌한다. 특히 계약·임금·노동시간·안전·의료·성 문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노동권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간부는 ‘도움’ 아닌 ‘통제’ All-IN... “외화벌이 도구만 필요할 뿐”

파견 전(前) 단계에서 중앙당·보위부·수산성 등 고위 기관이 집체 사상교육과 반간첩·계급교양을 실시한다. 이는 노동자가 해외에서 자의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적 통제를 가하는 구조이며, 국제법상 강제노동·인신매매 등에 준하는 정치적·사상적 예측성을 떨 우려가 크다. 또한 파견 이후에도 ‘미국과 한국 등 적대국가의 대조선 압살 책동으로 인해 조선반도(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되고 있다’는 식으로 대적 관념을 고취하거나 ‘이럴 때일수록 국가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면서 결속력을 다지는 사상학습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당국에 의해 주입된 공포심과 두려움이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구조 안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사실상 ‘명령 수행 기계’로 전락한 채 당국의 외화벌이 도구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관리자들은 노동자 임금의 대부분을 상부에 상납하도록 유도하고, 불만이 표출되면 생활비·음식으로 무마하거나 귀국(처벌) 조치를 취하는 식의 ‘당근과 채찍’ 대응을 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나 단체행동권 등 기본적 노동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구조로, 공포와 보복을 통해 권리 주장을 차단한다. 중국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훨씬 긴 근무시간과 휴일 부재 등의 차별이 발생해도, 이를 시정하려는 관리자 의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제 인권 및 노동기준 위반이 심각하게 의심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성분제’ 적용된다?...“간부 친적 노동자 별도 관리”

심지어 해외 노동자들과 함께 파견 나온 북한 측 관리자들은 귀국 후 신소(신고)가 가능한 인맥이나 간부 친척이 있는 노동자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선동분자만 제거하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계급적 프레임을 동원해 집단 처벌이나 표적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연좌·차별 행위로, 북한의 고질적 성분제가 해외 파견 노동 현장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국제사회는 공동 모니터링 및 제재 방안 강화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 차원의 제재와 시정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ILO 협약을 위배하는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감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이 초과근로·임금갈취·성적 괴롭힘에 노출될 때,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신고망이나 보호기구가 필요하다. 중국 내 인권단체,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 신고 시 신변 보호와 통역·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임규명’(accountability)과 관련한 논의와 실체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 관리자 및 관련 기관이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해 조직적으로 인권침해를 가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국제적·사법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귀국 후 신소가 가능한 노동자나 간부 친척의 존재를 근거로 차별·보복이 지속되는 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파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3자 검증을 활성화해야 한다.

결국,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계약·임금·노동시간·안전·의료·성 문제 전 분야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노동권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할 뿐 아니라, 북한 법상으로도 위배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을 국제사회가 마련해 나간다면 개선의 계기도 더욱 빨리 마련될 것이다. 🙏

김정은 시대의 노동자 해외 파견 정책과 인권 실태

이 승 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프로파일러, 정치학박사)

김정은 시대의 북한 노동자 파견

‘우리식 사회주의’라 일컫는 실상 자력갱생으로 점철된 북한 당국의 노선이 무색한 공간이 있다. 바로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으로 인한 외화벌이 현장이다. 김정일 집권기 이래 확장되어 온 북한 노동자 파견은 2013년 김정은 집권 직후 전 세계 40여 개국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지는 북한 당국과의 동맹관계 혹은 체제 유사성을 가진 국가들에 주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이들 국가는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 속 현지에서의 노동법 미준수 그리고 비인권적 착취까지도 눈감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¹의 효과로 인해 북한 노동자 송출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는 추정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 해외 파견장의 인권 실태에 대한 자료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인권 피해 여부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수용국(host country)이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국들의 비협조로 그 실체와 메커니즘 규명에는 진척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해당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 노동자 송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과거 김정은 집권 이후 해외파견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

견된 곳은 중국이었으며, 그다음은 러시아로 알려져 있었다.² 그러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기로 급속화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유착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중국과의 소원한 관계가 이어지면서³ 러시아는 파견 노동자를 수용하는 요충지가 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작스런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상황에서도 2월에는 리히용 당비서의 방러와 3월 러시아 안전이사회 대표단의 방북⁴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모양새다. 지난 기간 동안, 북러 양국은 부문별로 협조 조약⁵을 맺음으로써, 전방위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협상까지 이미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러시아로의 인력 송출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는 기존의 북한 노동자들이 겪었던 인권침해나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노동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진 영역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사진=중앙일보)〉

중국, 러시아 파견 현황과 특이점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지역은 러시아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니즈니노브고로드, 사할린에 이른다. 업종은 건설 노동자, 산업 단지의 공장, IT 노동자 등이 있다. 2017년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 박종철, “중국의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84호, 2024, p.139

3 본 기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반박이 이어졌지만, 이어진 다수의 보도에서도 북한 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북중 간 인적, 물적 교류에 중국 정부의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신규진 기자, 「[단독]中 “北 노동자 다 나가라”... 러와 밀착 北 ‘돈줄’ 쥔다」, 동아일보, 2024년 7월 9일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75098?sid=104>; 장술기 기자, “북한 노동자 강제 출국...북중 제감 기류는 아직 ‘냉랭’”, 2025년 2월 25일자, <https://www.dailynk.com/20250225-5/>

4 주희연 기자, “김정은과 포용한 러 쇼이구... “완전 일치된 견해 확인””, 2025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5/03/22/TNFOHH5AWZBT7HKLMF3ZEZ3SBA/

5 2024년 6월 북러 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바 있다. 전문은 2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양국간 군사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24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연방정부사이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정서 조인이 이루어졌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핵 개발을 제재하기 위해 외화벌이를 위해 각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송환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 비자 외에 유학생·관광비자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해왔다.

‘화성-15형’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했다. 당시 이는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차단하기 위해서였고, 이를 통해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를 3만 명 규모에서 2019년 말 1,000여 명만 남기고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였다.⁶ 그러나 2024년 러시아로 입국한 북한 주민의 수는 1만 명을 상회한다. 2025년 9월 한국의 국정원에 의해 노동자들의 대거 파견 사실이 알려지고, 심지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북한 노동자 2,000명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하니,⁷ 그 확산세는 매우 빠르다 할 수 있겠다.

반면, 중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김정은 집권기 직후 중국으로의 북한 주민 입국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대북제재로 파견 규모는 주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길림성, 요녕성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업단지 북한 노동자들의 숙식 공간이 제공되는 공장으로의 파견은 이어졌다.

2019년 12월 중국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2020년 1월 국경 봉쇄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외부에 파견되어 있던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해외 각국에 장기 체류하였다. 특히, 중국에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의 귀국이 어려워지면서, 무방비 상태로 중국에 체류하게 되었다. 그 시기, 코로나 파생 위기 속에서 북한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은 받은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다.

당시 파견된 지역은 주된 파견 요지였던 중국 길림성, 중국 요녕성 다롄 뿐만 아니라, 중국 장쑤성에 이른다.⁸ 북한으로 귀국하는 노동자들을 통해 밝혀진 바는 이들 대부분이 코로나 기간을 포함하여 장기 체류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결핵과 폐암 등으로 질병에 걸린 채 귀국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다.⁹

여전한 임금착취와 과도한 노동시간

이러한 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은 어떠했을까. 러시아, 중국 등 현지 기업체들

은 해당 국가 내에서 안정적이고 많은 수의 일감을 ‘도급제’로 맡길 수 있는 북한 노동자를 받는 것이 이득이다. 북한 노동자는 현지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북한 파견 기관 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할 필요도 없다. 이로써, 북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북한 파견 기관이 가지게 된다.

여러 대북 소식통을 통한 보도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갈취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파견 노동자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일정 금액을 국가계획분으로 제하고, 남은 돈을 장부에 기록해 두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귀국 시에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지에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달아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근로자는 임금을 스스로 관리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개별 부업을 허용해주어 이를 통해 수입을 창출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침은 국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하향식으로 일괄 내려오는 경향성도 발견된다. 러시아, 중국 현지의 많은 현장에 동시 전달되는 것이다. 최근 과제 상황 지시는 지난 2025년 3월 러시아와 중국 현지에 동시에 내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⁰ 국가계획분을 무려 두 배로 상향할 것에 대한 지시이다. 북한 당국은 해외파견 노동자들에게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 지원금마저 강제 모금하였다고 한다.¹¹ 이는 임금 수준이 향상되었다거나, 현지 생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던지 하는 변수에 대해 일체 고려 없이, 당의 일방적인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점에서 강제성을 띄고 있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곧 국가 자금으로의 유용과 연결되어 있다. 이미 국가 수입원을 획득하는 국가 사명을 띤 형태의 노동이라는 점을 노



〈중국 단둥의 의류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사진=더가디언)〉

6 서울-목용재, “통일부 “북 노동자 러시아 파견, 안보리 제재 위반”, RFA, 2025년 2월 10일자,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orth-korea-russia-un-sanctions-worker-munich-02102025094856.html

7 이상용, “北, 러시아 점령지 재건 사업에 최대 2000명 인력 투입 계획”, DailyNK, 2025년 3월 24일자, <https://www.dailynk.com/20250324-5/>

8 워싱턴-자민 앤더슨, “미 ”북 노동자들, 중국 오징어 가공 공장서 노동”, RFA, 2024년 9월 5일 자,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squidfactory-09052024144648.html

9 서울-김지은, “중국 파견 북 노동자 수백명 결핵 등 발병”, RFA, 2024년 10월 23일자,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tuberculosis-workers-10232024090001.html

10 정태주 기자, “北, 해외 파견 노동자 ‘총성자금’ 두 배 인상…착취 더 세졌다”, DailyNK, 2025년 3월 17일자, <https://www.dailynk.com/20250317-6/>

11 수해복구 지원금 명목으로 책정된 노동자 1인당 200위안은 심양 총영사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당에서 중국에 파견된 모든 회사의 노동력에 부과한 공통된 지원금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지은 기자, “북, 해외파견 노동자에 수해복구 지원금 강제 모금”, RFA, 2024년 7월 31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floodrecoveryaid-07312024091527.html

동자들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출발 전 거치는 사상 검증과 교양 학습 등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도 사상 주입과 성과에 대한 자아 비판을 포함하는 사상 교양 및 학습이 이루어진다. 파견 현장의 이런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에도, 코로나로 인해 장기 방치된 노동자와 그들의 관리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일부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의 임금 체불 반발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¹²

탈출을 막는 규정의 등장과 감시체계

대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파견되고, 파견 관리자들에 의해 파견 직후부터 여권을 압수당하며, 현지에서도 집체적 생활 속에서 한정된 구역만을 반복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는 정보들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든다.¹³

현지의 과중한 과제 부담과 외부 사회를 경험하며 바뀐 사상적 변화로 탈출을 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탈출 시도자들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북한은 IT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처형 규정도 마련하였다고 한다.¹⁴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연좌제 적용이다.

나아가 현지 수용국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탈출을 막는데 조력하고 있는 지점도 발견된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외출 시 사전에 중국 공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국가보위성의 협의 내용 또한 파견 이후 노동자 관리 방안을 포함한다.

해결되지 못한 과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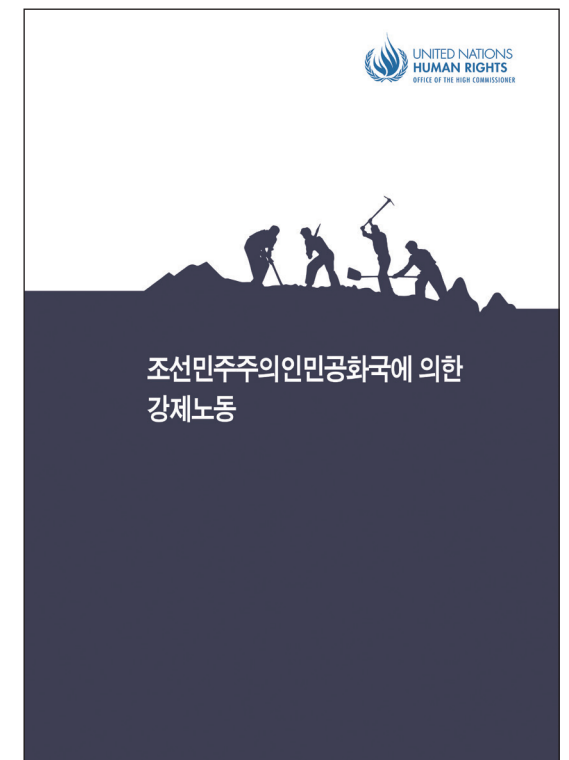
유엔서울사무소를 통해 발간되는 주제별 보고서 중 하나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2024) 또한 6개의 분류 기준 중 해외 노동자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강제 노동 지표에 의거해 북한의 해외 파견 현장에서의 운영 방식은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사가 동반되어야 하며, 국제 표준에 근거하여, 공급망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공급망을 쫓아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을 목과하고도 이익을 얻는 기업들의 수익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고안에서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규명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을 그 사람을 구매, 판매, 제공 또는 물물교환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했다.¹⁵

책임규명의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보위부원의 동반 파견이다. 북한의 모든 생산 조직체는 당위원회·당세포조직으로 이루어진 정치조직과 지배인으로 대표되는 행정조직이 이원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한 파견 현지 조직 사업체도 이와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그리고 보위부원은 사상 동향과 외부 접촉 제한, 이탈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아가 정보의 자유에 대한 일련의 법안이 북한에 마련되었고, 이를 해외 파견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모양새다.¹⁶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국 현지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목과해선 안된다.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는 관할권의 차원에서 파견국 및 당국의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을 통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발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2024) 보고서〉

12 그렉 스칼라튜, “[스칼라튜] 2024년 파업을 일으킨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 RFA, 2024년 5월 28일자,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greg/gscu-05272024101611.html>

13 이승주, “[북한인권 인덱스] #17 ‘삭제’된 존엄성, 파병과 파견 사이”, DailyNK, 2025년 1월 31일자, <https://www.dailynk.com/20250131-6/>

14 이상용 기자, “[그물에 갇힌 인권] ‘北, IT 노동자 탈북 시 현장 처형 규정’”, DailyNK, 2025년 2월 19일자, <https://www.dailynk.com/20250219-6/>

15 유엔서울사무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2024), p.12

16 데일리NK 기획취재팀, “[그물에 갇힌 인권] 北, 파견 노동자에도 ‘3대 악법’ 엄격 적용”, 2024년 10월 31일자, <https://www.dailynk.com/20241031-6/>

우리는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의 실태 조사와 정보 수집,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법 전문가들의 이미 10년 전¹⁷에,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특별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고, “ICC 로마규정의 인도에 반한 죄에 ‘노예화’를 그 구성요건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도에 반한 죄도 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시 해외 노동자를 향한 관심이 도모되는 지금 지난 10년간 가능성을 점검하고,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는지 되묻고 싶다.

다만 현 시점에 이르러, 해외 노동자의 전면 귀국이라는 결과는 일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들이 외부 사회에 발을 딛고, 공식적, 비 공식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 북한 사회로 고스란히 유입된다. 특히, 노동권의 측면에서 공조국이 제시하는 월급의 수준과 지급 방식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차이를 경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사회 변혁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은 확장되어야 하며, 인권 영역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북한 밖을 경험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을 양산해 내는 공간으로 작용해야 한다. 

17 DailyNK, “北해외 여성 노동자들 일주일에 5일 서럽게 울어”, 2015년 3월 11일자, <https://www.dailynk.com/%E5%8C%97%ED%95%B4%EC%99%B8-%EC%97%AC%EC%84%B1-%EB%85%B8%EB%8F%99%EC%9E%90%EB%93%A4-%EC%9D%BC%EC%A3%BC%EC%9D%BC%EC%97%90-5%EC%9D%BC/>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7)

김 열 매 성도

몇 차례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후로 극심한 긴장이 풀린 탓인지 제 몸에 허약한 부분들이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제대로 보신 하지 못했던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결국 죽음의 위기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저를 보며 이모와 외삼촌은 “이곳 타지에서 조카딸을 죽이면 누나에게 면목이 없다.” 하시면서 어머니에게 갈 수 있는 통행증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제 겨우 10개월 된 아이를 등에 업고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오빠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그림고 그림던 어머니를 뵈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거의 백골의 모습처럼 너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간 복수로 인해 생사를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오빠를 간병하느라 본인 몸을 챙길 여력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저 역시 아픈 몸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는 온전한 기쁨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동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중국에 지인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 그분의 도움으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나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동생 한 명이 중국-몽골 국경을 넘다 잡혀 북송되었고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우리 가족의 상황에 충격이 가시지 않고 가슴 깊이까지 저며오는 슬픔이 저를 덮쳤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무기력한 마음도 잠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중국의 한 목사님께 전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에 살고 계시는 친척분의 도움으로 브로커를 만나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께서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전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2년에 한 번씩 북한에 오셔서 함께 예배했던, 우리 가족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우리 가족의 상황과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목사님께서서는 제게 중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안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이 힘든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장맛비로 인



해 두만강의 물이 많이 불어있어 지금 바로 탈북을 실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몸을 치료하며 가을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몰래몰래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오빠와 저의 약을 구매했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하며 몸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제가 오랜만에 친정에 오니 ‘저들이 다 같이 도망치려고 하나보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안 그래도 감시를 받던 우리 집을 더욱 철저히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사러 시장에 나가도 자전

거를 탄 남자가 30m 거리를 유지하면서 온종일 따라다녔고 저녁이면 동네 청년들이 우리 집 텃밭에 앉아 밤새도록 감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움직였다가는 꿈쩍없이 모두 다 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저를 기다리던 남편이 아이엄마를 빨리 보내달라는 전갈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어머니 집에서 탈북을 준비하면서도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끝끝내 하고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같이 해준 남편을 배신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편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은 다시 평안도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마음먹고 어머니께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시가 좀 사그라들면 어머니와 오빠는 목사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따라가시도록 일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싫다. 내가 너를 이곳에 혼자 두고 어디를 간다는 것이냐, 이제 몇 날을 더 살겠다고...”

“어머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서로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사람을 보내시면 꼭 오빠와 같이 가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도로 가서 바로 네 남편에게 우리 가정 이야기를 다 하거라. 그랬을 때 네 신랑이 너를 싫다고 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그래도 좋다고 하면 거기 있는 거다.”

남편과 혼인하고 아이를 낳고 살며 어느덧 2년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해

서도 묻지 않고 그저 먹고살기에 바쁜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고달픈 생활이 서로의 과거를 물을 여유 따위는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결판을 내라고 말씀하시며 그때까지 나를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중국 목사님께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해드린 후에 상황이 잠잠해지면 어머니와 오빠를 꼭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도로 가기 위해 어머니와 오빠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열차를 타고 멀어지는 저를 따라 달리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마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어머니의 모습일 거로 생각해서 그 순간을 마음에 진하게 새겨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목사님께서 ‘평안도에 가서 꼭 치료받고 있어라.’라며 전해주신 돈을 받아서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일 해주실 거라”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두 달 만에 집에 돌아온 바로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남편에게 우리 집안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었던 것, 어려서부터 집에서 예배드렸던 것.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잡혀가시고 추방당하게 된 이야기를 전부 숨김없이 꺼내놓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한 후에 남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 반응이 없이 누워서 듣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집안도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러고는 자기

집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외가댁은 사실 황장업 씨의 친척관계였다고 합니다. 본래 이모들은 평양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잘 사셨던 분들이셨고 그의 부모님도 원래는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서 함께 평양에 예술 관련 대학에 다니다가 만나 결혼하셨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직책에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황장업 비서의 탈북으로 평양에 살던 그의 친인척들은 모조리 강제 이혼을 당하거나 추방되어 광산으로, 탄광으로 쫓겨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남편 또한 추락한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안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모부가 남편을 데려와 서로의 집안에 관해 묻지 않기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런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서로의 가정사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남편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남편은 학교를 졸업했고 교사 발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기들은 다 교사 발령을 받아 학교 선생님이로 나가는 데 남편만은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신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발령이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하셨습니다. 한편, 저는 저대로 아내인 저의 신분 또한 좋지 않아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하며 마음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남편은 다니던 학교로 가서 초급당 비서와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군 간부과에



들어가서 남편의 교사 발령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군 간부과에 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인 저의 가정 문건을 내놓으면서 이런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사 발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급당 비서님과 담임선생님께서서는 그것에 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학생에 대한 ‘보증’을 서겠다고 나서시며 남편의 교사 발령 승인을 촉구하여 결국에는 승인을 받아오셨습니다. 북한에서 ‘보증’이란 ‘이 학생이 잘못이 있을 때는 함께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쓰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그렇게까지 발 벗고 나서주신 분들 덕분에 남편은 곧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주체사상을 교육하는 담당 선생님이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 저의 가정 문건을 보신 초급당 비서님과 담임선생님께서서는 “너희 둘은 만나도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토대의 사람들끼리 만났을까”라며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또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학

교에서 근무하며 한 달 월급으로 1,500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옥수수 1kg을 사고 아이 간식으로 겨우 10알 정도 들어있는 사탕 봉지를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 가정을 도와주어야 간신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이었습니다.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개, 돼지, 닭, 오리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가정을 일구며 살아간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이모 집을 방문했다가 어머니와 오빠가 무사히 한국으로 넘어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 안도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날부터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는 강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도 끼니 준비로 혼자 부엌에 앉아 있을 때면, 다시 볼 수 없는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탈북하시고 나서 우리 집에도 도청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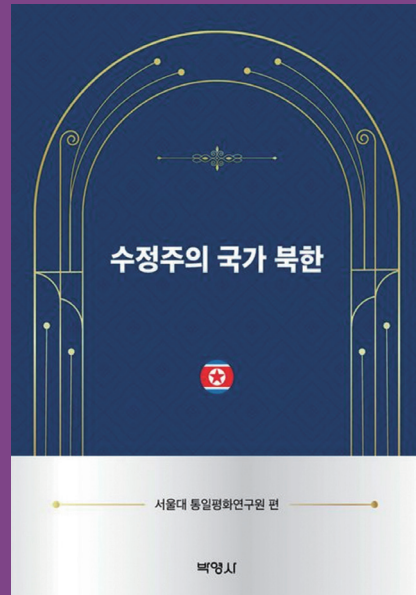
어 익숙해진 소리였기 때문에 저는 도청기가 설치된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전자 벽시계 초침이 돌아갈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착, 착, 착’ 하는 소리를 냈는데 숨을 멈추고 조용히 들어야 그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도청기가 소리를 내며 돌아가다가도 사람이 그 주변 2m 근방에 접근하게 되면 아무리 조용히 움직였다 해도 도청기가 사람을 인식하고는 자동으로 소리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면 또다시 착, 착, 착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식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워 지쳐 있는 마당에 감시까지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차 소리라도 들리는 순간에는 나를 실으러 오는 것일까 봐 두려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차 소리에 잠이 깨면 불 꺼진 방에 창문으로 차가 지나가는 방향을 몰래 확인하고서야 다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고, 마침내 아이만 데리고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저는 남편에게 이모집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모집에 가서 이모부나 외삼촌에게 통행증을 부탁하여 그 길로 북쪽까지 올라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도착하면 중국 목사님께 연락해서 탈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북쪽까지 가는 통행증을 해달라는 나의 말에 이모부나 외삼촌은 “네가 북쪽에 가면 다시 평안도로 나오지 않겠는데, 그러면 여기 남겨진 우리나라 너희 남편은 어떻게 살라는 거니?”라며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간의 돈을 쥐여 주셨습니다. 결국 그날로 저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하루 종일 집안 벽을 수리해 놓고서는 그제야 뒤늦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앉아 옥수수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식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가슴 속 깊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까지 그 고진 여정을 함께한 남편을 두고 혼자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이어서 같이 탈북을 하자고 했어도 오히려 내 발목까지 잡힐 것이 뻔했기 때문에 달리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탈북의 마음을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계속)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수정주의 북한
저 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편
출판사: 백영사
발행일: 2024년 08월 30일
가 격: 23,000원

우리는 흔히 북한이 잘 변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북한 관련 도서들을 살펴다보면 북한이 참 빠르게 변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수년 전 북한에 대해 묘사한 책들을 읽노라면 종종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이 묘사하는 북한과 최근 북한의 정책이나 방향성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곤 한다. 특별히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정치나 대외관계, 경제 정책 및 상황 등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보니 이러한 최신의 경향이 반영된 내용으로의 업데이트가 절실해진다.

오늘 소개할 책, ‘수정주의 국가 북한’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편찬한,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북한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된, 북한 공부를 위한 기본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 군사적 변화, 외교 및 대남 정책, 경제, 사회구조와 변동, 문화, 국가기구와 법, 과학기술 정책과 지혁혁신체제라는 각각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장들을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정리하였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점은 책의 제목에서 사용한 ‘수정주의 국가’라는 표현이다 ‘수정주의 국가’는 국제 관계에서 권력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가, 현재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국제정치 영역에서 흔히 기존의 패권국에 대항하는 도전국의 태도를 일컬을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현 세계 정세에 비추어 본다면 미국이 이끌어 왔던 규칙기반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언급하듯 북한에게 수정주의 국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북한이 큰 질서 변동의 주축이 될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냉전적인 군사전략 등을 고려할 때 ‘수정주의 국가’는 북한 분석에 장점이 있는 개념적 틀이며, 북한에 대한 사실을 단순 나열하거나 북한의 지향점을 설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분석과 비판을 해보자는 의도로 이러한 제목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이 책의 설명이다.

이런 의도가 반영된 것인지 이 책은 최근 (2024년) 북한의 변화와 상황을 반영하여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각 저자 나름의 평가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책은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영역에서의 역사적 맥락에서부터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등장, 2024년 초 대두된 적대적 두 국가론, 지방발전 20×10 정책,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 등 최근에 일어난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을 중요한 분석의 주제로 다루고 있어 최근 북한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각 장에서 저자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북한의 방향성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전망,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각 저자의 분석이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북한을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북한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방식이 있겠지만 언제든지 특정 분야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기본서 한 권 정도는 챙겨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소개한 ‘수정주의 국가 북한’도 그러한 기본서로 활용할 만한 도서라는 생각이다. 책의 목차 구성도 세부적이어서 궁금한 부분만 찾아보기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학술적인 책이다보니 일반 교양서적으로 부담 없이 읽어보시라 추천하기는 어렵겠지만 좋은 참고 서적으로서 ‘수정주의 국가 북한’을 소개해 본다. 📖

북, 트럼프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 한미연합훈련 반발



북한이 3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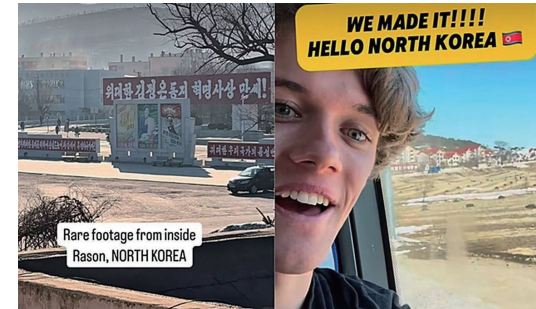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100km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CRBM은 사거리 300km 이하의 미사일을 말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근 두 달 만이며,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단거리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시험적인 성격이 점쳐지는 가운데 발사 당일 시작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3월 10일~20일)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남발하고 있는 완력행사는 가중된 안보위기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보도국 공보문을 통해 FS 연습이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의 당위적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며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했다. (참고: 연합뉴스, 3월 10일) 🐟

북한, 5년만에 재개한 서방 단체 관광객 방북 돌연 중단



〈독일 관광객이 촬영한 북한의 모습 (루카 파트메겐스 인스타그램)〉

북한이 2월 말 재개한 서방 단체 관광객 방문을 돌연 중단시켰다.

3월 6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영국인 소유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와 뉴질랜드인이 베이징에 설립한 영파이오니어투어 등은 전날 홈페이지에 북한 나선관광 중단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전면 봉쇄했던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나선 경제특구에 서방 단체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 이를 중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관광을 다녀온 서방 관광객이 SNS에 후기를 게시하면서 북한 내부 사정이 외부에 고스란히 알려지는 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국인 유튜버는 악명 높은 북한 당국의 '관광객 통제를 지적하면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했고, 독일의 유명 인플루언서도 북한 사람들이 가난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부정적인 후기가 잇따랐다.

북한 주민들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걸 차단하

려는 의도도 거론된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 기자 출신인 조 스미스는 중국인과 접촉이 잦은 북한 관광 가이드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물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까지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발 단체 관광이 재개되지 않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베이징 여행사 '즈싱허이'가 중국인 대상으로 모집한 나선 3박 4일 관광 프로그램이 출발 당일 돌연 무산됐다. 즈싱허이와 유사한 나선 관광 상품을 판매했던 중국 여행사 A사는 “여유국(중앙정부 문화여유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 지방 기관으로 관광 업무 주무부서)이 여행과 홍보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은 원하는데 중국 당국이 단체 관광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연합뉴스, 3월 6일) 🐟

수사는 중단됐지만…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에 유죄 취지 판결 논란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在北) 가족 대상 송금 과정에 가담한 일부 탈북민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인 송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북 가족 송금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월 11일 탈북민 A(53)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을 도와 2021년 11~12월에 총 11회(송금 금액 총 2천 425만원)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특별히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탈북민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송금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를 대리한 유옥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탈북민들의 불법적 송금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액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A씨를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비인도적이라는 외부 지적을 수용해 스스로 수사를 중단한 만큼 A씨를 포함해 이미 기소된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나오지 않은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탈북민이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브로커를 거쳐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송금액의 40~50%에 이르는 고율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대북 송금 방식은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정식 환전과 외환 송금이 아닌, 속칭 ‘환치기’ 방식의 자금 반출이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중국 측 브로커가 탈북민의 돈을 북한에 전달한 내용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정식 외환 송금을 받지 않으므로 합법적 송금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탈북자들의 설명이다.

역대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묵인했다. 북에 있는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데도 합법적으로 송금할 길이 사실상 없고 한 사람당 송금액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갑작스럽게 전국 곳곳에서 탈북민 대북 송금 관여자와 이용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과도한 수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은 특별한 대공 혐의점이 없는, 단순 가족 송금과 관련한 탈북민 수사를 중단했다.

유 변호사는 “A씨 사건은 2023년 경찰의 동시다발 수사 후 판결까지 나온 첫 사건일 것”이라며 “항소심과 다른 탈북민의 재판에서는 더 전향적인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참고: 연합뉴스, 3월 16일)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아”…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와 같이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4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재차 지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3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다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듯한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첫 임기 때 맺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계획이라는 질문에 “그렇다(I would)”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라면서 “확실히 그(김정은)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를 언급한 뒤 “그 수를 줄일 수 있다면 멋진 성과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a lot)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그것(핵무기)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되는 나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뉴클리어 파워’로 언급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되는 인도, 파키스탄과 나란히 함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하면서 ‘북한 비핵화’보다는 북한 핵능력의 일부만 다루는 핵군축 협상 등 ‘스몰딜’(small deal·소규모 합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으나 국제 사회는 외교·군사적 파장을 감안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외교 전문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이란 명칭을 정확한 개념에 근거해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첫 임기 때 북미 대화와 관련하여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강조하고 싱가포르 및 베트남에서의 북미 정상 회담 개최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통한 톱다운 정상외교의 의지를 재차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 연합뉴스, 3월 14일) 

김정은, 핵잠 건조 현장 시찰... 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3월 8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번 현지지도에서 당 제8차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호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핵 추진 잠수함, 즉 전략핵잠수함(SSBN)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SSBN 건조 사실과 함정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 현지지도에서 명칭에 '전략'을 붙여 전략무기급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SLBM을 쓸 수 있는 '핵공격잠수함'이라며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 추진 체계를 적용한 핵잠수함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진이 부분적이긴 해도 북한이 지금까지 이런 규모의 잠수함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2019년 공개한 3천t급 잠수함 크기를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야심차게 내놔던 김군옥영웅함이 정상 운용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그보다 더 큰 잠수함은 실제 물에 떠서 군사적 성능을 발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김군옥영웅함보다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자력 추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수하기까지 앞으로 2~3년 걸리고 원자력 추진 운용에 또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가 북한에 원자로 기술을 제공한다면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는 만큼 군은 양측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지지도에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상 전투함 건조 현장도 둘러봤다. 또한 함선 보유 전망 계획과 단계별 목표, 그를 위한 국방경제사업의 이후 방향과 제반 과업들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발표하며 함선 관련 주요 과제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를 꼽은 바 있다. 현재까지 핵 추진 잠수함의 개발 성과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참고: 연합뉴스 외 언론보도 종합, 3월 8일)

- 1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파견되어 일하는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 및 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파견을 나온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그에 따른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북한 노동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문이 열리도록,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마음 발이 개간되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러우 전쟁의 종전 움직임 속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향한 선교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근 러우 전쟁의 종전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군수물자 수출과 군대 파견으로 이익을 얻어왔던 북한에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외화벌이 방안으로 노동자 파견 활성화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 재건에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그 외 지역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노동자 송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게 될 세계 여러 지역의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선교에 나설 수 있도록, 이를 위한 한국 선교계와 세계 교회의 협력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2025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 (WWL 2025)에서 최악의 박해 국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 관련 연구와 보도들, 그리고 현장의 소식을 통해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심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강제 복송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 선교사님께서 억류되신지 4천일이 지났습니다. 이 외에도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으며, 심문 과정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관련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에서 체포된 백 모 선교사님도 1년 넘게 억류되어 계십니다. 갇혀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송된 신자들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디지털 기술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수자경제'를 내세우며 디지털 기술을 보급, 활용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경영을 효율화하고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간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 디지털 기술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돕는 긍정적 효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의 정책은 오히려 디지털 기술이 주민들에게 미칠 사상문화적 영향을 차단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을 더욱 철저하게 통제, 장악하려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보이고 있어 우려됩니다. 디지털 기술이 통제의 도구가 아닌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 삶을 개선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 선교 현장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는 선교의 교두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선교사 대량 추방 사태 등 국가 간 관계 변화에 따라 선교 현장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최근 급박한 정세 변화 역시 북한 선교 현장에 모종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예의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현장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정세와 그에 따른 파장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전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역환경이 조성되고 더 많은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7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삼국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선교 선교현장에서는 현지인 동역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서구 출신의 선교사들은 이방인이므로 선교지에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현지인은 민감한 곳에서도 제약없이 이동하며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북한출신 방문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십수년간 선교지 당국의 박해와 현지인 사회 붕괴로 인하여 북한선교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현지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지인 사역자들이 양성되며 선교사들과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WORLD WATCH LIST 2025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지도

기독교인들이 높음에서 극심한 정도의 박해로 고통받는 국가 전체

박해 정도

- 높음
- 매우 높음
- 극심함

- 1 북한
- 2 소말리아
- 3 예멘
- 4 리비아
- 5 수단
- 6 에리트레아
- 7 나이지리아
- 8 파키스탄
- 9 이란
- 10 아프가니스탄

- 11 인도
- 12 사우디아라비아
- 13 미얀마
- 14 말리
- 15 중국
- 16 몰디브
- 17 이라크
- 18 시리아
- 19 알제리
- 20 부르키나파소

- 21 모로코
- 22 라오스
- 23 모리타니
- 24 방글라데시
- 25 우즈베키스탄
- 26 쿠바
- 2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28 니제르
- 29 투르크메니스탄
- 30 니카라과

- 31 멕시코
- 32 오만
- 33 에티오피아
- 34 튀니지
- 35 룩셈부르크(DRC)
- 36 부탄
- 37 모잠비크
- 38 카자흐스탄
- 39 타지키스탄
- 40 이집트

- 41 카타르
- 42 코모로
- 43 카메룬
- 44 베트남
- 45 터키
- 46 콜롬비아
- 47 키르기스스탄
- 48 브루나이
- 49 차드
- 50 요르단

- 51 말레이시아
- 52 아제르바이잔
- 53 케냐
- 54 네팔
- 55 탄자니아
- 56 러시아 연방
- 57 지부티
- 58 쿠웨이트
- 59 인도네시아
- 60 아랍 에미리트 연방국

- 61 스리랑카
- 62 팔레스타인 영토
- 63 브룬디
- 64 르완다
- 65 온두라스
- 66 도고
- 67 바레인
- 68 기니
- 69 우크라이나
- 70 앙골라

- 71 베네수엘라
- 72 우간다
- 73 코트디부아르
- 74 레바논
- 75 간버아
- 76 남수단
- 77 벨로루시
- 78 필리핀

나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elation 3:2)

월드와치리스트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픈도어의 분석가들이 150개국의 현장 전문가들에게서 받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구성된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 상황은 폭력과 압박을 추적하는 점수제를 사용해 기록됩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 사건의 간수 및 심각성, 그리고 삶의 5개 영역에서 이들의 신앙 생활에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2025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이해와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기회인
북한선교학교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주차	날짜	강의 주제	강사	형식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 이해	1	4월 7일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정종기(고신총회 북한선교원)	온라인	
	2	4월 14일	한국교회와 북한선교	하충엽(숭실대학교)		
	3	4월 21일	북한주민의 경제생활과 장마당	최설(북한대학원대학교)		
	4	4월 28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인권문제	강디모데(엔케이피플)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			
	5	5월 12일	북한의 종교와 교회	유관지(북녘교회연구원)	온라인	
북한 선교 현장	6	5월 19일	북한의 종교 박해 실상	김바울(북한 지하교회출신 사역자)	온라인-대면 병행	
	7	5월 26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북방선교방송)	온라인	
	8	6월 2일	북한선교에 있어서 국제협력문제	정인수(NKCCC)		
	9	6월 9일	DMZ 기도회			
	10	6월 16일	비즈니스를 통한 북한선교	이다니엘 사무총장(IBA)	온라인	
	11	6월 23일	국내정착 탈북민 선교와 통일목회	정형신 목사(뉴코리아교회)		
	12	6월 30일	제삼국 북한선교 현장 이야기	현장사역자 1	온라인-대면 병행	
	13	7월 7일	제삼국 북한선교 여성사역 이야기	현장사역자 2		
	14	7월 14일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수료식	현장사역자 3		

일정 및 시간 4월 7일 - 7월 14일, 매주 월요일 저녁 7:30-9:30

진행 형식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일부 강의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회비 - 10만원 (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접수 오픈도어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이벤트 및 공지사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접수기간: 2025. 2. 3 - 3. 31)

문의 한아론 선교사 (010-5107-8448)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